

## 국 외 소 식



### 세계 첫 中藥이용 애완동물 치료병원 개업

세계에서 처음으로 각종 중약재(中藥材)들을 이용해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치료하는 병원이 홍콩에서 문을 열었다고 대만 언론들이 12월 12일 보도했다.

200만홍콩달러(한화 약2억7천만원)를 투자해 개업한 이 병원은 주중 무휴로 영업을 하며 동물 건강 상담에 180홍콩달러(한화 약2만4천원)를 받고 있다.

이 병원 원장인 허미 리는 약초 등 각종 중국 약재들을 동물들이 먹기 좋게 하기 위해 가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약초의 쓴 맛과 자극적인 냄새를 줄이기 위해 “모든 쓴 성분들을 추출해 설탕에 절인 대추같은 것들을 첨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미 리 원장은 호주 뉴 사우스 웨일스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홍콩대학에서 중국 의학(中醫)을 공부하고 있으며 현재 애완동물 병원 외에도 2개의 중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단지 작은 병을 치료하거나 마지막 수단으로 중의를 찾는 사람들을 치료하는데서 만족을 찾을 수가 없어서 중의학을 이용해 애완동물 치료에 나섰다”고 밝혔다.

허미 리 원장은 “애완동물들을 치료해주면 사람들은 의사를 대단히 높이 평가해 준다. 치료해주면 애완동물을 기른 집의 아들 딸을 살린 것과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의사도 가족의 일원이 되고 대단히 보람찬 일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2005년 12월 12일

### “새해엔 애완견보험 꼭 드세요”

“애완견을 키우려면 보험에 가입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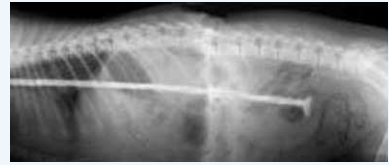
새해부터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개를 키우려면 주인들은 애완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미국 ABC 방송이 12월 30일 보도했다. 빈 시의 한 관계자는 “애완견에 물려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사건이 속출하고 있으나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회문제로 부각하고 있다”고 보험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애완견 보험 보상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다. 개 주인은 최소 72만5000유로(약 8억6600만원)를 보상해주는 애완동물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 같은 거액의 보상금은 웬만한 인간 종신보험 보상금보다도 많은 것으로 제3자가 개에게 물렸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나 위로금, 소송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산정된 것이다. 개 주인이 보험에 들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최고 3500유로(약 412만원)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한다.

세계일보 / 2005년 12월 30일

**몸통만한 화살 삼킨 강아지, 수술 중 죽었다가 살아나**

몸통만한 크기의 장난감 화살을 삼켜 사경을 헤매던 강아지가 기적으로 목숨을 건져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강아지는 수술을 받던 중 30초 이상 심장이 멎어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 의사가 주인에게 비극적인 소식을 전해주는 전화를 걸려하자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현재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



지난 12월 16일 영국 헤러게이트 뉴스(www.harrogatetoday.co.uk)에 따르면, 영국 노스 요크 크나레스보로에 사는 레브라도 믹스견 헨리가 기적의 주인공.

생후 14주가 된 헨리는 최근 집 정원에서 뛰어 놀던 중 14인치(약 36cm) 길이의 장난감 화살을 삼키고 말았고, 사건 후 헨리의 생명은 극히 위독한 상태로 빠져들었다고 언론은 전했다.

헨리는 인근 동물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의사 그레이엄 바로우의 집도 아래 수술을 받았는데, 복부를 절개하고 화살을 꺼내던 중 헨리의 심장이 그만 멎어버렸다고 수의사는 밝혔다. 바로우는 주인의 집에 헨리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리려 전화를 걸었는데, 헨리의 심장이 다시 뛰는 기적이 일어난 것.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바로우의 설명인데, 헨리는 현재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팝뉴스 / 2005년 12월 20일

**북극곰 익사 속출, 빙붕녹아 탈진 등으로**

기후 변화로 북극의 빙붕(대륙과 이어져 바다에 떠 있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이 녹으면서 곰들이 물에 빠져 죽고 있다고 영국의 선데이 타임스가 12월 18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 광물관리국의 해양 생태학자 찰스 모넷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최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해양포유류학회에서 지난해 9월 알래스카 북부 해역에서 함께 헤엄치던 북극곰 약 40마리 가운데 4마리가 숨겨 물에 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이들은 “지난 20년 간 빙붕이 빠른 속도로 녹아 곰들이 먹이를 찾아 헤엄쳐야 하는 거리가 두 배로 늘었다”면서 “1986년부터 2005년 사이 알래스카 외해에서 헤엄치는 북극곰은 전체의 4%에 불과했으나 지난 여름에는 20%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빙붕 가장자리의 두께가 얇은 얼음에 구멍을 뚫고 올라오는 물개 등을 잡아먹고 살았지만, 이 얼음이 녹아 내리면서 부빙을 찾아 먼 바다로 나가게 됐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곰들이 헤엄쳐야 하는 거리는 최대 100km에 이른다. 연구팀은 “25km 정도는 무리가 없지만 100km씩 헤엄쳐야 한다는 것은 탈진과 저체온증 등으로 익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북극권 내 20개 곰 서식지역에는 약 2만2000마리의 곰이 살고 있다. 러시아 북동 해안 야쿠츠크에서 활동하는 세계야생동물기금(WWF) 연구팀은 먹이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북극곰들 사이에 동족을 잡아 먹는 모습이 처음으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 2005년 12월 20일

### “거북이, X-선물로 치열교정 받아”

미국에서 결합이 있는 주둥이로 음식 섭취에 곤란을 겪었던 거북이가 치과 의사와 수의사의 도움으로 교정을 받았다고 AP통신이 12월 15일자(현지시각)로 보도했다.

워터타운 톰슨파크 내 뉴욕 동물원 관계자는 지난해 5월에 온 거북이 “허미”(2~3세로 추정)가 아래턱의 이상으로 음식섭취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거북이는 이빨이 없으며 주둥이로 음식을 부순 후 입안에서 갈아서 섭취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2월 14일 아침 수의사 바이어씨가 마취를 놓고 치과의 버가씨는 허미의 턱에 4개의 핀을 삽입했다고.

핀에 치열교정 어린이에게 사용하는 것과 같은 2개의 고무 밴드를 걸었는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빨간색과 녹색의 밴드를 사용했다고 한다.

동물원 관계자들은 하루에 한번 고무 밴드를 떼 내고 허미에게 먹이를 줄 예정이다.

한국경제 / 2005년 12월 16일

## 국내 소식



### 남의 개 때리면 ‘재물손괴죄’

서울, 경주 등에서 개에게 물려 죽거나 다 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따른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서울 중앙경찰서는 1월 2일 자신의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이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도 지난해 12월 29일 중랑구 면목동 정모(50)씨 집에서 정씨의 개들이 인근에 살던 방모(9·초등학교 3년)군을 물어 숨지게 한 사건과 관

런, 조만간 정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남의 개 때리면 ‘재물손괴’** = 개 때문에 불편을 겪더라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선 안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옆집에서 자꾸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과 애완견을 둔기로 때려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머리를 맞은 애완견이 동물병원에서 뇌진탕으로 폐사한 것과 관련, 김씨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도 집 앞에 묶여 있던 타인의 애완견이 달려들어 물으려 했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찬 혐의(야간 공동손괴)와 기타 폭행혐의로 기소된 서모(39·승려)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 **‘개 소음’도 배상판결** = 법원이 인정하는 개주인의 책임은 ‘소음’의 영역도 포함된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11월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김모씨 등 8명이 “개 두 마리가 내는 소음 때문에 매일 밤잠을 못 잤다”며 이웃집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20만~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개에게 성대수술을 시키는 등 소음을 줄이려고 노력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고 일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소음에 시달렸던 점을 감안해 이 같이 판결한 것이다.

서울고법의 경우, 같은 달 전원주택 거주자 P(여·50)씨가 “이웃집 개 소음으로 몸에 이상이 생겼다”며 개 주인 이모(42)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147만여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 **책임은 주인에게** = 법원은 물린 사람 보다 개주인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묻는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6월 연립 주택을 방문한 유모씨가 나무에 묶어놓은 진돗개에게 다리를 물리자 개주인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책임이 80%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치료비 등 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했다. 법원은 “유씨가 개를 자극해 봉변을 자초했고 ‘개조심’이라는 표지판도 주변에 부착해 뒀다”는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돗개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주인이 개 관리를 온전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형사상 자신의 개가 남을 공격하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됐다.

최근 부산과 대구 지법은 자신이 방치해 놓은 개가 타인을 물어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개주인 최모씨와 김모씨에게 과실치상죄를 적용, 각각 벌금 20만원과 50만원씩을 선고했다.

문화일보 / 2006년 1월 2일

## “개의 해 개 버리면 양심불량”

병술년 개의 해를 맞아 사람들과 가장 친숙한 동물가운데 하나인 개들이 버림받자 강원도 춘천시가 애

완견들을 거리에 버리지 말 것을 당부하는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설치하고 있다. 춘천에서는 지난 해 390마리의 개들이 버려져 임시 보호소를 통해 처리됐다.

연합뉴스 / 2006년 1월 2일



## 🌐 '개의 해' 맞아 충견 상징 '오수의 개' 복원된다

병술년(丙戌年) 개띠 해를 맞아 개의 충직함을 대표하는 오수의견(獒樹義犬) 복원사업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오수 의견은 산속 불길에서 술에 골아 떨어진 주인을 자신의 몸으로 구하고 죽은 것으로 알려진 충견. 전북 임실군은 이 설화를 바탕으로 지난 1999년부터 오수개 특징에 맞는 견종을 육성, 진돗개처럼 지역은 물론 한국을 대표하는 명견으로 키우는 사업을 추진해와 가시적인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의 '오수개 육종사업장'에는 현재 70여 마리의 미래 오수개 후보가 사육사와 훈련사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고 있다. 임실군과 오수의견연구회는 설화 등 각종 문헌과 민화, 고대 동북아지역 개의 혈통, 유적지에서 발굴된 개뼈 등을 기초로 오수개가 '티베트산 마스티프' 종이 국내로 들어와 토종화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28~30kg의 중간 크기에 온후한 인상으로 귀가 처지고 꼬리는 말아 올려졌으며 물을 충분히 적실 수 있는 10cm 가량 길이의 검정·황색 털을 가지고 있어 듬직해 보이는 것이 특징.

순종교배를 통해 복원되는 오수개 후보견들은 태어난 지 45일쯤 외모로 1차 선별되고 6개월째에 활동성 등 성격으로 2차 선별을 거친 뒤 주인에게 복종하는 법 등 다양한 훈련을 받는 3단계의 엄격한 과정을 통해 선발된다.

특히 이 달에 태어날 40여마리는 외모가 미래 오수개 모델에 70% 가량 근접한 데다 성격도 충직하고 영민하며 용맹함도 갖출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정관일(36) 오수개 육종사업소장은 "오수개 후보견들은 다른 짐승에게는 사납지만 사람한테는 순한 성격에 각종 훈련 습득도 빠르다"며 "몸집을 줄이고 민첩성만 갖추면 2007년부터는 형질 고정과 보급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 의견은 고려 때인 1230년 최자가 쓴 '보한집'에 소개된 설화의 주인공으로 술에 취해 산불이 난 것도 모르고 잠들어 버린 주인을 구하려고 온몸을 던져 불길을 막은 뒤 죽었다고 전해진다. '오수(獒樹



개 오, 나무 수) 라는 지명도 충견의 죽음을 애통해 한 주인이 죽은 개의 무덤에 꽃은 지팡이가 큰 나무로 자란 데서 비롯됐다고 한다.

한편, 부산 부산진구는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애완견들을 충견의 고향으로 널리 알려진 전북 임실군 금암리 오수마을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쿠키뉴스 / 2006년 1월 2일

### 야생동물 피해 농가에 보상금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포천시가 경기북부 지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포천시는 “이달 중순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포천시 야생동물에 따른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지난해 말 마쳤다”고 1월 1일 밝혔다.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야생동물 피해 발생 때 농민들은 최고 300만원에서 최저 3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시는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조사를 거쳐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이 있으면 피해금액의 100%, 울타리·그물·경음기 등의 피해방지시설이 설치된 경우 80%, 피해방지시설이 없을 경우 60%를 각각 보상한다.

2004년 말 현재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모두 11억4400여만원으로 1년 전인 2003년 8억9400여만원보다 2억4000여만원이 증가했다.

동물별로는 까치 5억3300만원, 멧돼지 3억8900여만원, 고라니 1억4900만원 순으로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 2006년 1월 2일

### 폭설로 야생동물 밀렵 성행

폭설이 내린 광주·전남지역에서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밀렵행위자 30명을 적발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적발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밀렵 유형을 보면 실탄 소지가 17명으로 가장 많고, 수렵장외 지역에서 수렵한 경우 12명, 수렵장내에서 포획금지 동물을 포획한 경우 1명 등이며, 밀렵 대상 동물은 멧비둘기가 22마리로 가장 많고, 꿩 3마



리, 너구리 2마리 등이다.

YTN / 2005년 12월 29일

##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크게 늘린다

현재 전국토 면적의 1.4%인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을 5년 안에 2%로 늘리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인간과 야생동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향후 5년간의 국가 야생동식물 보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담은 '야생동식물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을 보면 야생동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전국 545곳 1392km<sup>2</sup>에 불과한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을 2010년까지 1998km<sup>2</sup>로 늘릴 예정이다. 전국토 면적의 2%, 서울시 면적(605km<sup>2</sup>)의 3배가 넘는 땅을 야생동물들의 위한 안전한 공간으로 제공할겠다는 것이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에 자연환경조사연구센터를 설치해,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정서적으로 친근한 조류나 포유류만이 아니라 어류 등의 서식·분포실태도 적극 조사하고, 상습 밀렵·밀거래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밀렵에 의한 동물들의 희생을 줄이기로 했다.

시·도별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도 수의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 환경오염이나 동물의 지역 간 이동 등에 따른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은 또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멸종위기종 복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각 종별로 구체적인 복원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야생동식물보호 기본계획 추진에는 앞으로 5년 간 4700억여원의 재원이 소요될 예정”이라며 “인간과 야생동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공동체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 2005년 12월 26일

## “애완견 거래 관련 법 제정해야”

제주도도민들은 애완견 거래 등과 관련한 법 제정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녹색소비자연대가 애완견에 대한 소비자 의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3%가 애완견 거래 기본 원칙과 판매자의 의무사항, 보상 방안 등을 규정한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조사는 애완견을 기르거나 경험이 있는 도민 3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성별은 여성 84.3%, 남성 15.7%였고 연령은 30대 34%, 40대 32.3%, 50대 이상 14.7%, 20대 11.7% 순.

애완견 거래 시 건강진단서와 품질보증서 발급의 필요 여부에 대한 물음에는 전체 응답자의 87.3%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67.3% 응답자가 모른다고 응답해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뒷받침했다.

애완견을 기르게 된 동기로는 '가족 중 누군가 원해서'가 48.3%, '동물을 사랑해서' 18.7%, '지인의 권유와 분양 통해' 13.7%,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11.3%,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6% 순으로 나타났다. 분양 경로는 지인을 통한 경우가 절반을 차지했고 이어 애견센터, 동물병원, 인터넷 순이었다.

제주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최근 빈발하는 애완견 폐사와 관련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인 예방책과 합리적인 피해 보상기준 등을 담은 애완견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제주일보 / 2005년 12월 17일


### 버려진 애완견 농촌노인들에 선물한다

도시민들로부터 버림받은 애완견이 농어촌 노인들에게 전달된다. 부산 부산진구는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애완견들을 충견의 고향으로 널리 알려진 전북 임실군 금암리 오수마을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12월 13일 밝혔다.

12월중 1차로 전달되는 애완견은 15마리로 구청측은 개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농촌 어르신들의 외로움도 달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부산진구는 최근 임실군과 협의를 마쳤고 수의사와 함께 주인없는 개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건강한 '선물'을 선별중이다.

현재 부산진구 일대에서 버려지는 애완견은 월 평균 45마리로 부산 대저동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돌보고 있지만 한달이상 주인이나 분양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안락사시킨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최근 애완견 사육을 둘러싼 이웃 간의 마찰이 끝내 죽음으로 이어지는 충격적인 사고와 서울 지하철에서 '개똥녀'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애완견과 관련된 분쟁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며 “도심에서 버림받은 개들이 농촌 어르신들에게 귀여움을 받으면서 좋은 날들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애완견을 기르는 가구수는 350여만 가구로 5~6가구마다 한 마리씩 사육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애완견과 관련한 제대로 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버려지는 애완견이 전국적으로 매월 500여마리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쿠키뉴스 / 2005년 12월 13일